

인턴십은 기화...기업 42% “하반기 인턴 뽑아”

‘사람인’ 기업 413곳 설문 결과 “정규직 전환형” 66.3%
aT·전남도 등 공공기관...한화·이마트24 등도 채용

청년 실업 50만명 시대에 인턴십을 통해 취업 기회를 잡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기업 역시 ‘검증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용 인턴 채용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인턴 채용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413곳을 설문한 결과 5곳 중 2곳 꼴(42.4%)로 “올해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7% 상승한 수치다.

이들 기업의 인턴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유지’(40.6%)하거나 ‘확대’(37.1%)한다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인턴 채용 형태는 ‘정규직 전환형’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전환·체험형 인턴 모두’(23.4%)가 뒤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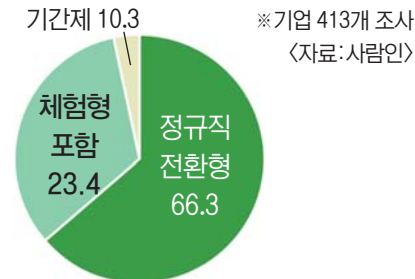
‘기간제 체험형’만 뽑는다는 응답은 10.3%로, 지난해에 비해 2.9% 낮아졌다. 특히 채용 시기를 6월로 정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41.7%)어서 치열한 인턴 취업 경쟁을 예고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0일 현재 게재된 채용공고를 보면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서부발전, 전남대병원, 한국산업은행, 국립광주과학관 등이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 인턴은 연말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턴을 뽑는 기관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다. 공사는 오는 21일까지 체험형 인턴 41명을

■하반기 인턴 채용 형태 (단위:%)



모집한다. 이번 전형에는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지역인재’ 전형(7명)이 포함돼 있다.

평가절차는 정규직 채용 때와 동일하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국가직무능력기준(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업성격검사 등 필기시험을 본 뒤 공사 역량·인성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미국 기업에서 1년 동안 인턴십을 하고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해외 인턴십도 있다. 전남도와 전남대는 ‘전남도 청년 해외인

턴사업’ 대상자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남 출생이거나 지역 대학 재학생·졸업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참가자는 출국 전 어학 능력, 회사 지원 및 면접 노하우, 실무 역량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문의 02-6207-3262, 326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광주 등지에서 일할 채용형 인턴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인턴 채용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와 화순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18일까지 모집하고 광주과학관은 일반 행정지원 부문 인턴을 채용한다. 한국서부발전(주도 군산 근무 8명 등 총 100명)이 하계 체험형 인턴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이외 한국교통안전공단(14일까지), ㈜한화(18일), 이마트24(19일), 제주항공(21일), ㈜E11(11일) 등도 하반기 인턴 채용 공고를 내놓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9.49 (+27.16) 금리(국고채 3년) 1.53 (0.00)
↑ 코스닥 721.14 (+4.61) ↑ 환율(USD) 1185.20 (+3.80)

구직급여 지급액 또 역대 최대...5월 7587억

고용보험 가입자 7년 3개월만에 최대 규모

지난달 8만4000명이 구직급여를 신청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4000명으로 지급 총액은 7587억원에 달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00명(7.8%) 늘었고 지급액도 24.7%(1504억원) 증가했다. 사회안전망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급여액을 인상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팍팍한 고용 사정도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6397억→7382억→758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50만8000원으로 지난해(135만5000원)보다 15만3000원(11.3%) 인상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6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만3000명(4.1%) 증가했다.



월별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8만3000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924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8% 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대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51만3000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1만5000명(3%) 늘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등의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이 아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11~14일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한다.

나주시 급전면 동악리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6회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회 추진계획 등 농촌 지원사업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수상 마을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

강사로는 전병환 흥성군 거북이마을 위원장과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가 나서고 임실치즈마을과 순창 발효소스 토굴 등 견학도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협, 광양 매실농가 일손돕기
다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광양 매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협 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최근 광양시 진상면을 찾아 매실 수확을 도왔다. 올해 매실은 봄철 개화기에 냉해가 있었음에도 지난해보다

〈전남농협 제공〉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사라질까

원하는 고객만 발급 급물살
발급비용 부담 축소 기대

지난해 카드 결제에 따른 영수증 발급 비용이 560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은 128억9000만

건 발급됐고 560억9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최근 4년(2015~2018년) 동안 카드결제 건수는 134억→142억6000만→159억4000만→170억6000만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영수증 발급비용 역시 488억9000만원에서 560억9000만원으로 3년 새 14.7% 증가했다. 종이영수증의 평균 발급비용은 한 건당 7.7원이다.

이는 13개 부가통신업자를 대상으로 집계된 수치로 신용카드사가 백화점 등 직

접 가맹점에 지불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영수증 수령 의사가 없다고 하면 아예 발행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이달부터 카카오페이에 회원 가입하고서 청구서 서비스를 동의한 고객에게 한해 전자영수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활용한 비용이 종이영수증 발행과 큰 차이가 없어서 카드업계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KB국민카드는 다음 달부터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를 시행한다.

무서워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거래만 원칙적으로 가맹점용 카드 영수증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발급되는 방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용 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3만6213원으로, 대부분이 5만원 이하다.

고용진 의원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로 고쳐 드려요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26년간 237가구 개·보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 개·보수하는 사업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2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237가구의 노후주택을 고쳐줬다.

주택건설협회는 올해도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복수 추천을 받아 광주시 북구 임동에 사는 전상군 경 박모(75) 씨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노후주택 16가구에 대한 주거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가구당 평균 1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전액 협회 회원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한 주택건설업체는 골드클래스, 대광건설, 대광이엔씨, 대성건설, 리젠시빌주택, 리제, 모아종합건설, 삼라, 영무건설, 우미건설, 헤림건설 등이다.

박재홍 광주전남도회장은 “광주·전남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원사들이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해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하하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속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아모리온 롱바디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드	비비드아모르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추복빌딩(도곡동 518-9)